

- 주요 뉴스: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 상당 기간 지속 예상 향후 통화정책은 노동시장이 관건
 - ECB 슈나벨 이사, 기존 시장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인상이 필요
 - 중국 익일물 레포 금리, 사상 최저 수준. 당국의 유동성 공급 확대 등에 기인
 - 중국 외교부장, 미국과 관계 정상화 위해 노력. 러시아와는 협력 강화할 방침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통화긴축 장기화 전망 및 이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등이 영향
 주가 하락[-0.2%], 달러화 약세[-0.4%], 금리 상승[+27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 등이 반영
 유로 Stoxx600 지수는 실적 개선 기대로 인한 소비 관련주 강세 등으로 0.6%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일본 국채 금리 상승과 엔화 강세 등이 원인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3%, 2.8%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긴축기조 지속 예상 등이 배경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25bp 상승

※ 원/달러 환율(주간) 1.9% 하락, 한국 CDS 하락

		12/23일	12/16일	전주말대비			12/23일	12/16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3,844.8	3,852.4	-0.20%	국채 금리 10y	미국	3.75%	3.48%	27bp
	유럽	427.45	424.74	0.64%		독일	2.40%	2.15%	25bp
	중국	3,045.9	3,167.9	-3.85%		영국	3.64%	3.33%	31bp
	일본	26,235	27,527	-4.69%	CDS 5y	한국	53bp	56bp	-3bp
	한국	2,313.7	2,360.0	-1.96%		중국	76bp	76bp	0bp
환율	달러지수	104.31	104.70	-0.37%	위험 지표	EMBI+	374	384	-10bp
	유로화	1.0617	1.0586	0.29%		VIX	20.87	22.62	-7.74%
	엔화	132.91	136.60	2.78%		WTI유	79.56	74.29	7.09%
	위안화	6.9900	6.9740	-0.23%	원자재	구리	380.3	376.2	1.10%
	원화	1,280.8	1,305.4	1.92%		금	1,798.2	1,793.1	0.29%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 상당 기간 지속 예상. 향후 통화정책은 노동시장이 관건

- 지난 2년 동안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의 핵심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계의 양호한 재무 여건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의지가 반영된 '23 회계연도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여 가계수입 증가세 유지될 것으로 관측
- 이에 공급측 압력 완화에도 불구하고 목표치 이상의 인플레이션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 견조한 실질소득 증가세 기대와 상당한 수준의 가계 저축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연간 물가상승률은 꾸준히 4% 내외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
-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까지 낮추려면 5.5%~6.0%까지의 금리인상이 필요하나, 현실화 가능성은 낮은 편(Bloomberg Economics). 오히려 내년 상반기 금리를 5.0%까지 높이고 그 수준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살펴볼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상황
- 이러한 시각의 근거로 향후 노동시장 전망이 거론. 연준의 공격적 금리인상에 회의적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은 실업률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연준의 긴축의지가 약화될 것으로 판단. 이에 연말 그리고 내년 초에 발표될 노동시장 관련 지표들이 연준의 향후 정책방향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전망
- 내년 FOMC 인사 구성에서 금년보다 비둘기파적 인사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도 관심. 12명의 위원(고정 위원 8명, 매년 교체 위원 4명) 가운데 4명의 교체 위원들은 이전보다 비둘기파적 성향(매파3, 중도파1→비둘기파1, 중도파2, 매파1)을 나타낼 전망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11월 신규주택판매, 전월비 증가. 최근의 모기지 금리 하락 등이 반영

- 11월 신규주택판매는 64만채(연환산)로 전월비 5.8% 늘어나며 2개월 연속 증가세. 이번 결과는 모기지 금리 하락, 건설업체의 인센티브 제공 확대 등에 기인. 다만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국면이 지속

■ 미국, 혹한 등의 악천후로 많은 지역에서 대규모 항공기 결항과 정전 등이 발생

- 강력한 겨울 폭풍 등으로 한 때 160만의 가계 및 기업이 정전사태에 직면하고 수천 건의 결항(23~24일 동안 약 8천건)이 발생.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천연가스 공급 차질에 직면. 반면 혹한 등으로 가스 수요는 오히려 '19년 이후 최고 수준

■ ECB 슈나벨 이사, 기존 시장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인상이 필요

-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금리를 기존 의견보다 높이는 방안을 대비해야 한다고 발언. 아울러 주요 정책금리는 인플레이션 전망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첨언. 투자자들도 최근 수신크리(현재 2.00%) 전망치를 상향(2.75%→3.40%)

■ 독일 정부 경제 고문, 높은 인플레이션은 2년 정도 지속될 전망

- 모니카 슈니처 고문은 기업이 높은 투입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24년까지 인플레이션은 중요 이슈가 될 것이며, 그 이후 목표(2%)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

■ 중국 익일물 레포 금리, 사상 최저 수준. 당국의 유동성 공급 확대 등에 기인

- 12/23(금) 익일물 레포 금리의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은 0.5527%로 전일 대비 15bp 낮은 수준에서 거래. 이번 결과를 유도한 유동성 공급 확대는 경제성장률이 내년 2/4분기부터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Macquaire의 Larry Hu)

■ 중국 인민은행, 부동산 부문 정책 강화를 요청

- 인민은행의 왕 이밍 통화위원은 최근의 부동산 판매 감소를 고려할 때 현행 정책들이 강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새로운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 아울러 부진한 수요 등이 부동산시장 회복을 억제한다고 지적

■ 중국 외교부장, 미국과 관계 정상화 위해 노력. 러시아와는 협력 강화할 방침

- 왕이 외교부장은 중미 정상이 공감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양국관계를 바로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설명. 한편 러시아와는 상호 신뢰와 호혜 협력을 심화하고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 관계를 견고히 하겠다고 강조

■ 홍콩, 수 주 이내에 중국과의 국경 완전개방에 나설 전망

- 존 리 행정장관은 질서 있고 점진적인 형태로 중국과의 국경선 완전 개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언. 먼저 선전 및 광둥정부 인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국경 재개방 계획을 세우고, 이를 중앙정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부연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2/26 현지시각 기준)

- 미국 성탄절 대체 휴일, 일본 11월 기업서비스물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시스템 충격, '23년에도 이어질 가능성 - The Economist

(The year of the rate shock)

- 금융시장은 ① 연준과 금융시장이 물가의 하방경직성, 최종금리 수준, 금리인하 시기에 다른 시각을 유지하고 있고 ② 미국 경제가 침체에 진입할 지의 여부 및 그 경우의 발생시기가 불확실하기에 혼란이 종식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
- 현재까지 주식, 채권, 암호화폐의 경우 긴축효과가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사모펀드, 부동산 등으로 충격이 확대될 수 있고 금융기관들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
- 결국 ① 인플레이션 및 금리 논란 ② 투자자들의 낙관적인 성장 및 기업이익 전망 ③ 금리상승 충격의 금융시스템 반영이 마무리된 상태는 아니기에 '22년의 혼란이 '23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 미국 의회의 '23 회계연도 대규모 지출법안, 연준의 정책 부담 확대 우려 - WSJ

(Biden and Congress Still Haven't Made Inflation Central in Budget Matters)

- 의회에서 가결된 '23 회계연도 지출법안에는 새로운 경기부양책, 감세 등이 포함되지 않아 바이든 행정부 재정기조의 전환으로 평가되나 지출규모(국방 10%/비국방 8%)가 인플레이션(약 7% 기준)을 상회하여 물가상승 압력 완화는 기대난
- 민주당, 공화 양당과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대응이 최대의 과제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재정정책 기조는 아직 그에 부합하지 못해 연준의 정책적 부담은 확대될 가능성. 다만, 상하원 다수당이 달라져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 재정부양책을 시행하기 어렵고, 공화당의 감세안 추진도 힘들다는 점은 다소 긍정적

■ 금융시스템 내 유동성 위기, 중앙은행의 신뢰 악화를 초래할 소지 - Financial Times

(The central bank horror story)

- 금년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대응은 늦은 측면이 존재. 이는 당국자들이 1970년대와 같은 고물가 대응 경험이 없고, 장기간 이어진 저물가에 익숙했기 때문. 이러한 대응은 중앙은행의 권위를 악화
- 금융불안정에 따른 중앙은행 개입이 증가하면 물가안정과 상충하여 신뢰는 더욱 악화. 금융기관의 '23년 경기침체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과 외환 파생상품 관련 부채와 같은 부외(off-balance sheet) 위험 등의 요인이 이를 일으킬 가능성

■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유가 및 미국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예상 - WSJ

(China Won't Spoil the Fed's Soft Landing)

-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가 유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 과거 중국 정부의 부동산, 중공업 활동 지원 등 경기부양책 시행 시 유가가 상승. 이는 중국 내 원유 수요의 상당 부분을 건설 등 산업 부분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
- 이번에는 부동산 경기 반등 징후가 나타나지 않아 소비가 회복되더라도 원유 수요, 유가 상승폭은 크지 않을 전망. 이를 고려 시 중국의 경기 회복이 미국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 다만, 중국 정부가 내년 초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설 경우 상방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

■ 미국 소비, 소비자의 저가 제품 선호 확대 고려 시 점차 위축될 가능성 - Financial Times

(America's Christmas shopping spree)

■ 미국 운임료 및 기업재고 등의 지표, 공급망 문제 개선 신호를 발신 - WSJ

(Supply Chains Upended by Covid Are Back to Norm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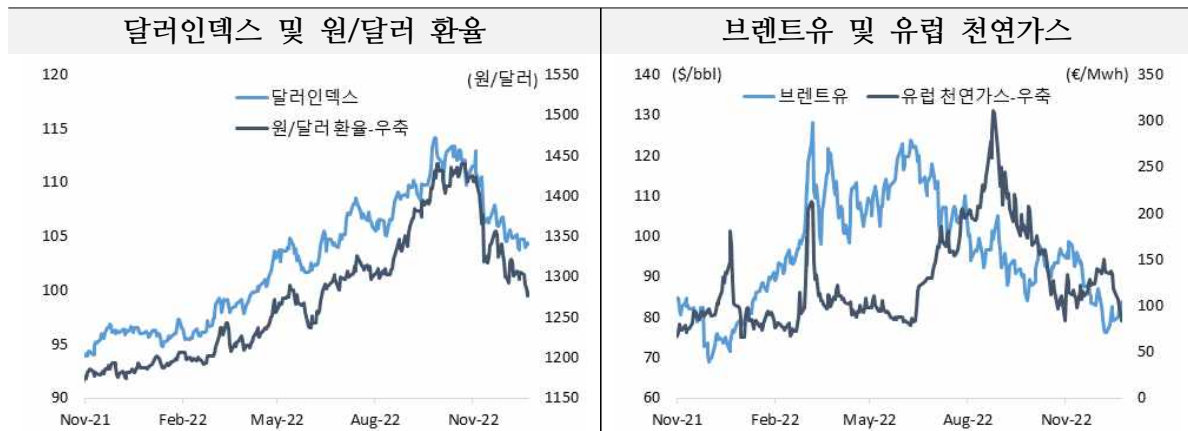
■ 일본은행의 수익률곡선제어 조정, 후임 총재의 정책 여력 확보를 위한 선택 - 블룸버그

(Was It Kuroda's Waterloo, or Just Smart Planning?)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